



2) 잔치가 좋지만, 잔치 자체가 \_\_\_\_\_ 이 되면 안됩니다.

(마 22:8)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

(마 21:29) (말아들이)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

(마 21:30)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하였다가  
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

3) 혼인잔치에 청함 받았다고 해서, 모든 것이 다 \_\_\_\_\_ 은 아닙니다.

① 첫번째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 => 권위를 \_\_\_\_\_ 하고, 권위에 \_\_\_\_\_ 함

(마 22:5-6) 그들이 돌아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,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 
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.

② 두번째 청함을 받은 이방인들 => 권위에 \_\_\_\_\_ 하고, 권위에 \_\_\_\_\_ 하려함

(마 22:11-12)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

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

(마 22:14)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.

(계 19:8)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 
옳은 행실iero다 하더라.

(요일 1:9)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 
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.

(롬 13:14)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으로 오직 주 예수그리스도로 옷 입고  
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

(사 61:10)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 
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 
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.

(롬 13:11-12)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 
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.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 
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.

\* 구원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, 감사합시다!